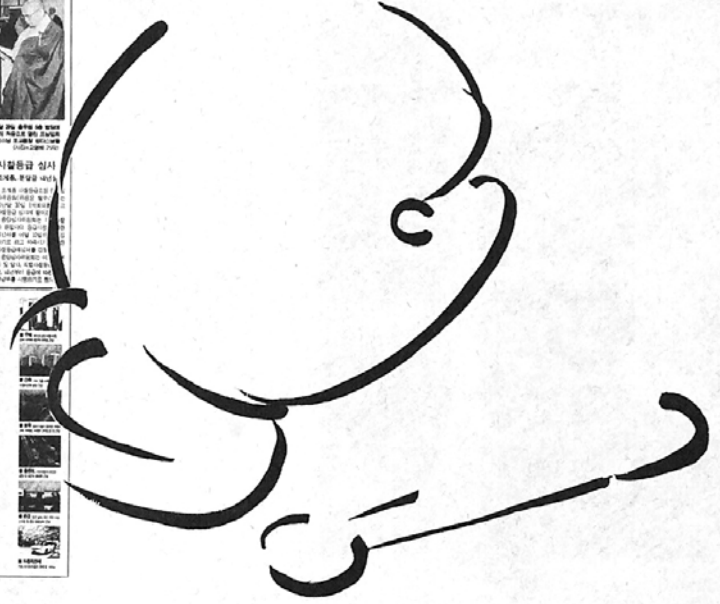


“청와대에 법공양을 합시다”

불교계와 청와대 사이에 담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佛法에는 원래 담이 없으므로 '현대불교'는 이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청와대에 법공양 합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고 불교계의 움직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현대불교신문을 청와대로 보내 불교를 제대로 알립니다.

본사가 직접 보내지 않고 법공양을 제안하는 것은 많은 불자들이 '불교 바로 알리기' 뜻을 담아 보내는 '현대 불교'야말로 가슴을 열고 눈여겨 봐야 할 귀중한 공양물임을 인식시킬 수 있고 그간에 높아진 담을 허물어 낼 수 있다는 신념 때문입니다.

관공서에도 법공양 합시다

불교를 바르게 알려야 할 곳은 청와대뿐만 아닙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모든 공공기관이 불교를 제대로 이해 할 때 더 이상의 종교편향 정책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군법당에서 부처님을 몰아 낸다거나 부처님오신날이 국가고시를 치르는 일은 바로 행정일선의 공직자들이 불교를 모르는데서 비롯된 오지 못할 사례였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는 물론 도청, 시청, 군청, 읍·면사무소에까지 현대불교신문이 불자들의 마음과 함께 배달된다면 작은 일로 스님들이 관공서를 수차례씩 찾아다니는 번거로움도 줄어들 것입니다.

불자님 자녀의 학교에 법공양을

현대불교를 법공양 해야 할 또 하나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곳은 다름아닌 교육현장입니다. 본지 조사에 의하면 45명이 공부하는 국민학교 교실에서 7~10명이 불교신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23~25명 이상이 타종교를 믿는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지 96년 신년호, 60호 1면 보도)

새싹불자가 줄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사실은 새싹 불자를 이끌어 줄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 교무실과 도서관 연구실에 '현대 불교'를 보내고 불자님들의 모교 후배들과 은사님께 '현대 불교'를 보내는 일은 지금의 내가 불자라는 자긍심을 내일의 나에게 확인시켜 주는 분명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 법공양 동참방법

- 보내고 싶은 곳 : 지정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본사가 지정.
 - 동참범위 : 1구좌당 1만원이며 3개월간 유효(동참구좌 수는 제한없음)
 - 입금방법 :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계좌번호 010041-0255243 입금자 이름옆에 '법보시'라고 표기
 - 문의 : (02)737-8881 본사 총무국 (02)722-4162 본사 편집국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번지 현대불교신문사

이웃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세요

■ 현대불교의 독자 한분 한분이 곧 진리의 수레바퀴입니다 ■

현대불교신문은 2천만 불자의 긍지를 대변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2천만 불자의 자랑스런 대변인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있는 곳, 그곳이 곧 법당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지면 가득 신행의 지침이 될 부처님의 말씀이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곁에 두면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좌절을 희망으로, 고통을 수행의 거름으로 바꿔 놓을 지혜와 용기야말로 현대불교의 변치 않는 메시지입니다.

이웃에 현대불교를 권하는 독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까운 분들께 현대불교를 권해 주신 독자분께 다음과 같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 단 1명이라도 권유하신 분께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 1명 권유시 : 본지 3개월 무료 구독권
- 2명 권유시 : 본지 6개월 무료 구독권
- 3명 권유시 : 본지 9개월 무료 구독권
- 4명 권유시 : 본지 12개월 무료 구독권

- 구독 기간은 6개월, 1년 단위로며 1명을 기준으로 3개월 무료 구독권을 드립니다.

- 이미 구독하고 계신 분께는 해당 기간만큼 구독기간을 연장해 드립니다.

신문 받으실 분

성명	전화	연령
주소		
성명	전화	연령
주소		
성명	전화	연령
주소		

권유하신 분

성명	전화	현대불교 구독여부	이미 구독	구독하지 않음
주소		전화번호		

자르는 선

* 우편이나 팩스 또는 직접 전화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 그밖의 사항은 본사 영업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대표) 02-737-8881
팩스 02-737-0697